

제7회 일본 진단 세미나

- ◆ 주제: 한일지자체교류의 현황과 과제
- ◆ 일시: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15:00-17:00
- ◆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 Room
- ◆ 발표: 야스모토 토시오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장)

■ 발표

안녕하십니까. 야스모토 토시오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달 말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장 직위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이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마지막 업무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일본의 일본해(동해) 연안에 있는 돗토리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소에 저는 ‘왜 일본의 지방공무원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저는 돗토리현의 공무원 신분으로 CLAIR에 파견되어 서울에서 근무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1994년 6월에 강원도청에 파견되었을 때인데요, 이 기간 중에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업무를 주로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 몇 달이 지난 후인 10월경에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고, 1995년 1월 11일에는 일본에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한국에 있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약 10개월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돗토리에 돌아간 뒤, 저는 ‘강원도회’라는 친목모임을 결성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사실 돗토리에 ‘강원도회’가 있는 것처럼 강원도에는 ‘돗토리회’가 있습니다. 일본에 파견근무를 했던 한국 공무원들의 친목회인데, 한일간에 서로 파견되었던 공무원들끼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7년 후에 두 번째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CLAIR 서울사무소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마침 2002년에 한일월드컵이 열렸을 때는 마침 CLAIR 서울사무소가 광화문에 있어서, 일본이 탈락한 다음부터는 거리응원 행렬에 끼여 한국팀을 함께 응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본으로 돌아간 지 2년이 지나자 ‘겨울연가’ 붐이 크게 일었습니다. 덕분에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춘천이 유명해지게 되었죠. “춘천에 가보셨다니 부럽네요”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저는 다시 한국에 와서 CLAIR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2000년 돗토리 대지진도 한국 출장 중에 경험했고, 한신 아와지 대지진도 한국 파견 중에 겪었는데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도 한국에서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때 동일본대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 분들의 도움과 격려의 메시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CLAIR 소개

다음으로 제가 몸담고 있었던 CLAIR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LAIR의 본부는 도쿄에 있고 서울, 뉴욕, 런던, 파리, 싱가포르, 시드니, 베이징 이렇게 7개의 주요 도시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CLAIR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본의 모든 자치체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단체이며, 해외사무소는 공동사무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CLAIR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는 일본 자치체의 활동 지원과 각 자치체 장(長)이 의뢰하는 광고 PR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뢰에 의한 조사업무로서, 일본 자치체뿐만 아니라 한국 측의 의뢰도 있어서 요청이 올 경우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치체에서는 한국의 IT산업, 영어교육, FTA, 의료개호, 다문화정책 등 일본보다 한발 앞선 부분을 배우고 싶다는 의뢰가 있었으며, 한국측에서는 일본의 조세정책, 복지정책 등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 자치체의 PR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명 만화가인 허영만 화백을 모셔서 일본 각지를 관광하고 책을 발간하는 ‘매력발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치체가 일정을 맡아주시면, 저희 쪽에서 허영만 화백의 관광 및 취재활동에 동행하고 비용은 저희와 자치체가 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출판한 책은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단행본 외에도 TV 프로그램, 여행잡지,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 등을 통해 일본 자치체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나 방송사에서 일본으로 취재나 촬영을 가고 싶다는 요청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CLAIR가 의뢰를 받아 적당한 일본 자치체에 연결시켜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웃도어 브랜드 ‘North Face’의 포스터와 스타일북을 토야마현에서 촬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KBS ‘생생정보통’과 SBS ‘좋은 아침’ 등의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온천지나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명소 등을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절한 자치체를 소개해 주고 때로는 일본 취재를 수행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치체와 업계를 연결해 주는 프로덕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CLAIR는 이 밖에도 물산전(物産展)을 활용한 관광 PR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일본 각 지역의 특산품을 모아 판매하는 ‘일본물산전’ 행사를 3주간 개최하고 있고요, 서울시청 앞의 일본식 이자카야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해 각 지방 음식의 캠페인을 하면서 매력발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LAIR는 기본적으로 자치체의 니즈에 맞추어 어떤 일이든 도와드리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도 일본에 관해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활동과 지원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자치체의 니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한일 지자체교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한일 교류 속에서 일본 지자체는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일 지자체교류의 배경과 현황

이것은 토야마 현이 제작한 거꾸로 된 지도인데요, 이 지도상으로 보면 한반도, 중국, 러시아 대륙, 일본 열도가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보입니다. 종종 환일본해, 환동해 등의 말도 쓰이곤 하지만, 이 지도를 보면 이런 말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본해(동해)가 마치 유럽의 지중해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럽이 지중해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했듯이 일본과 한국도 그런 식으로 일본해(동해)를 통해 교류를 더욱 증진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일본이 얼마나 대륙과, 특히 한국과 가까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편을 통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돛토리 해안에 도착하고 부산에서 흘러보내면 큐슈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은 가깝습니다. 이런 지형적 조건을 이용해서 친근감이 생기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배편뿐만 아니라 비행기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한국행 직항편이 있는 도도부현은 전체의 약 55%인 26곳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직항편이 없더라도 조금만 이동해서 근처의 현으로 가면 손쉽게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한두 시간이면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물론 한국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재산이지만, 일본의 지자체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큰 아이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살려서 교류하고 싶다, 특히 경제교류를 하고 싶다'는 자치체들의 니즈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한일교류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90년대 오부치-김대중 정권에서 이루어진 한일정부간의 파트너십과 제후추진 선언입니다. 이것이 정부 레벨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간 레벨에서 계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로 인한 한일 양국 국민의 의식변화와, 겨울연가 및 배용준의 인기가 기폭제가 된 한류 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K-POP에 의한 한류의 인기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일간 여행객 수를 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한일을 합친 왕래 여행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해 한국에 오는 일본 관광객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일본에 가기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일본에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한일 지자체 자매결연 현황

다음으로 자매결연 수의 추이를 보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의 결연 케이스는 1958년의 울산과 야마구치현 하기(萩)시입니다. 당시 울산 인구는 10만 명이고 하기는 7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울산 인구가 120만인데 하기는 인구가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산시장을 뵈었을 때 지금 이렇게 규모 차이가 나는데 괜찮느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전혀 개의치 않고 앞으로도 상호간에 우호를 증진해 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1990년을 전후로 해서 자매결연 수가 많아졌고, 특히 2002년 월드컵 이후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간 교류를 돕고 자매결연 사례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 지자체에서 자매결연을 제의하더라도 일본 측에서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의 지방행정은 일본보다 더 ‘top-down’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지자체장의 의지가 교류 추진에 바로 직결되고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임기 중의 큰 성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시작 단계에서 우선 자매결연을 제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요. 그러나 일본은 보통 신중하게 접근하고, 교류를 막 시작하면서 자매결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충분히 한 뒤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간 교류를 추진할 때는 우선 서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op-down’ 방식으로 자매결연에 관해 협의만 해 놓고 실제 교류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구요. 한국에서는 심지어 지자체장이 바뀌면 전혀 교류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Top-to-top의 교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교류의 바탕에 전제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교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는 반면 일본은 매사에 조직적이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신중히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에 종사하다 보면 이 시간감각의 간극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도도부현 규모의 자매결연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선 깨닫게 되는 것은 우선 서일본 쪽이 많다는 점입니다. 일본해(동해) 연안의 돗토리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이 각각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지도로 보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건 해류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지자체 측의 특징으로는, 지자체의 의욕이 있다면 복수의 일본 자치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원래 서울시는 도쿄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홋카이도와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역시 쿠마모토현과 나라현 두 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자체는 17개, 일본 자치체

는 47개로 수가 다르니까 한국 지자체에서 2, 3곳과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정촌(市町村)을 포함한 체결 수를 보면 총 143 곳의 자매도시 중 역시 일본해(동해) 연안, 즉 서일본 쪽이 많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돗토리현으로, 아홉 곳의 한국 지자체와 자매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자치체 중에는 한국과의 자매교류가 전혀 없는 곳도 있어서, 이 부분의 교류도 앞으로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40여 곳의 자매결연 계기를 앙케이트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국가와의 교류 중에 응답한 결과가 이 숫자이고, 오른쪽 괄호 안의 숫자는 한일 교류에 대해서만 집계한 내용인데요. 한국과의 교류 그리고 그 외의 국가와의 교류에서 공히 1위를 차지한 것은 역시 ‘공통점, 유사점 발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터리 클럽이나 라이온즈 클럽 등 민간 레벨의 친목 단체의 교류가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이 한일교류에서는 2위를 차지한 반면,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일교류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점, 유사점’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줄다리기 축제가 있다든지, 공통의 특산물이 있다든지, 공항이 서로 가깝다든지, 제주도 출신자가 많이 살고 있다든지, 온천이 있다든지, 중국의 같은 도시와 자매결연 중이라든지, 왕인박사처럼 저명한 또는 역사 속의 인물에 관한 유적이거나 연관이 있다든지, 국제교류원(CIR)의 출신지라든지, 대전과 시마네현 오오타(大田)시처럼 이름이 같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의 규모의 유사성도 교류의 지속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평균 인구가 30만 명 정도인 데 비해, 일본은 2-3만 명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규모 차이를 극복하고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울산과 하기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경위가 있겠지만 서로 교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고 교류의 계기를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자매교류를 통해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일본 지방공무원의 수는 약 40명인데요, 그 중 절반 정도는 서울에 체류 중이며 나머지는 경기도, 부산 등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개 반년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짧으면 4개월 정도로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자치체들이 한국에 독자적으로 사무소를 두는 패턴도 있고, CLAIR와 같은 공동사무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 파트너 측 관공서에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서 연수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이바라키현 카시마시의 직원과 사가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직원과 후쿠오카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어프로치에 의해 복수의 일본 자치체 직원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한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한일교류의 ‘key person’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JET 프로그램과 지자체교류

이런 ‘key person’이라는 관점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JET 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입니다. 총무성과 외무성, 문부과학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프로그램인데, CLAIR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JET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은 ALT(외국어지도조수)라는 영어 지도교원이고, 이들은 어학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발음을 도와 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원(CIR)은 국제교류사업을 돕고 통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스포츠국제교류원은 스포츠가 성행한 국가나 지방에서 파견되어 일본의 고등학교 등에 배치되어 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양궁, 배드민턴 등 한국이 강한 종목의 선수가 일본에 많이 와 있습니다. 한국의 JET 참가자 그래프를 보면 1993년부터 파견이 시작되었는데, 국제교류원이 대부분이고 어학 및 스포츠교류원은 적은 편입니다. JET프로그램에서는 외국에서 파견된 교류원을 일본 자치체와 계약해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한일 지자체간 자매결연을 맺은 143곳 중에는, JET 프로그램 참가자가 계기를 만들어 교류를 시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인연 만들기’ 사업을 많이 도와 온 것이죠.

다음으로 도도부현별 파견처를 보면, 역시 서일본 쪽이 많고 시행 10년 후부터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돗토리, 나가사키 등의 지역에 특히 많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돗토리현 고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역시 국제교류원은 통번역 업무가 많고, ALT는 한국어 교육 지원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인 대상 수업이나 요리교실이나 문화강좌, 언어강좌에도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업무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현지에 3-5년 있다 보면 그 고장의 유명인사가 될 정도입니다.

한국 JET의 특징은 CIR이 9할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점, 그리고 능력이 우수하고 일본어도 잘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이 많다는 점 등입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63명 정도를 선발하는 데 2-300명이 응모하는 등 경쟁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파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많은 일본 자치체가 이들을 채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은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OB들은 ‘JET AA’라는 모임을 만들어 여러 가지로 활동하면서, 바쁜 중에도 한일교류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사람들이 한일 지자체 교류의 큰 재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5. 돗토리현의 교류현황

제가 몸담고 있는 돗토리현은 JET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한일교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돗토리현의 교류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돗토리현은 시대를 넘은 대륙과의 교류를 이어 왔습니다. 기와장, 숟가락, 온돌과 유사한 유적도

발굴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바다를 건너 교류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120년쯤 전에 강원도에서 표류선이 난파해 왔다고 하는데, 이 해안에 일한교류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식 정원, 일한교류기념비, 연표 등도 그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의 교류도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매결연 전부터 농업 분야 교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류분야를 확대한 끝에 자매결연도 맺었고, 교류 10주년 행사도 열면서 지도자 간에도 사이 좋게 교류중입니다. 2001년에는 항공편이 취항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크루즈 페리 취항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에 ‘다케시마의 날’ 문제가 터져서, 교류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뚝토리현 국제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강원도로부터 교류 중단을 통보하는 팩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2년 후에야 교류가 재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지방정부 레벨의 교류는 중단되더라도 민간교류는 계속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지자체 회담이 지속되었고, 언론 및 스포츠 교류 등 다채널의 접촉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회, 박물관 등으로도 교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려서 다른 일본 자치체와는 다르게 뚝토리현은 강원도 차원에서 교류도 하지만, 현내 시정촌들도 속초, 평창, 양양, 인제 등 강원도 내의 군 단위 교류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뚝토리현 간 교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뚝토리현은 한국과의 교통편도 잘 마련되어 있고, 항공편과 배편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저렴하게 많은 인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뚝토리현은 사구, 온천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등산, 레포츠, 사이클링, 스키 등 스포츠코스가 많습니다. 게다가 만화로 유명한 고장이기도 하며, 해산물과 주류 같은 먹거리로도 이름난 곳입니다. 이처럼 한국 분들이 찾아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많이 있으니, 부디 뚝토리현을 많이 찾아 주셔서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 한일 지방교류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정부간과 민간간의 교류의 의의에는 역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간 교류는 여러 사건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교류, 특히 민간을 포함한 시민 레벨의 교류는 그런 정치 문제 등과 거리를 두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간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지방, 민간, 시민 레벨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볼 때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실감합니다만 일본에 있을 때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한국을 접하면 아무래도 과격한 데모 등의 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치가의 발언이나 우익단체 등을 보고 비슷한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직접 경험이 없이 외국에 친구가 없이 그 나라 사람과 말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은 역시 매스컴 등을 통해 단편적인 이미지로 외국을 접하게 되죠.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은 이렇다, 일본 사람은 이렇다는 식의 단순화된 일반론이 의인화되어 국가의 이미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을 봐도 역시 한국 사람이 싫다, 중국 사람이 싫다 하는 식의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국가의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조심해야 하겠지만, 실제로 교류

를 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 보면 ‘한국인’이라든지 ‘일본인’이라고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시 그런 국가의 의인화 같은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한 나라의 국민 안에서도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교류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와 생각이 다르지만,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지자체 교류의 하나의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일은 가깝고 비슷한 점이 많지만 문화와 사고 방식 등 다른 점도 많으니까 교류를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key person’을 배출하고 그들끼리의 교류를 심화시켜 가는 것이 앞으로 교류추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위해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지자체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 & A

Q1) 국가간 교류의 교통수단으로는 배편과 항공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교통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방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될지요.

A1)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교통비 문제입니다.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해 보면, 대도시 이외에 지방에는 한국 분들이 가보지 않으신 비율이 높습니다. 가보고 싶은 지역을 여쭙보면 잘 알려지지 않거나 큰 도시가 아니라도 가보고 싶어하시는 지역이 다양한데 말이죠. 그래서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2차 교통수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돗토리현의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택시를 3시간 1천 엔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자치체에서는 나름대로 비싼 일본의 교통비를 어떻게 극복해서 외국 손님들을 모실 것인가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홍보를 앞으로 해 나가는 것 역시 저희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Q2)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CLAIR와 비슷한 기관이 있었는데, 혹시 이 기관과 업무제휴나 연락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A2)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정부기구개혁이 있어서 기존의 한국지자체국제화재단(KLAFIR)이 지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업무부서로 흡수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의 파트너로서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Q3) 한일지역교류에 있어서 문화나 관광 분야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서는 한국에 오래 계시면서 경제나 산업 방면 자매교류의 성공사례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성공사례를 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자체 교류 중에 경제나 산업 방면의 교류가 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애초부터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보다는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업 차원에서 교류가 성공한다면 지자체가 나설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굳이 예를 들어 보자면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 원주의 산업단지와 후쿠시마현이 교류를 한다든지, 교토부의 마이즈루항과 포항시가 상호 항로 개척을 위해 협정을 맺었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항로가 생긴 뒤부터는 페리회사들끼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지자체가 추진한 교류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지 조금 주저하게 되기는 합니다. 지자체 레벨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어느 단계부터는 분명히 기업끼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Q4) 저는 예전에 일본의 지방대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CLAIR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한일 지자체간 교류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일본의 정부 차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을 때, 일본 자치체 교류는 오히려 활력을 잃은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일하셨던 느낌이 조금 듣고 싶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가나자와와 전주가 중국의 같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인연으로 상호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북한과 결연을 맺은 곳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접한 사례들을 보면 일본에 유학한 한국 학생들은 보통 대도시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 대학에 간 학생들이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방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방대의 경우 대학 전체 레벨의 대처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한국 측 대학은 기숙사까지 다 제공을 하는데 일본 측 대학은 수업료만 면제해 주고 주거비용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내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나서서 대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원기숙사가 많이 비어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숙소를 학생한테 제공한다든지 해서 지자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인적교류에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A4) 처음에 말씀하신 일본 자치체의 교류 열의 약화는, 일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중한 자치체 회의 같은 것을 열어 보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쪽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일본은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를 겪어왔는데, 재정난을 거치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국제교류예산일 겁니다. 우호교류와 경제교류 속에서 실익이나 효과를 원하는 논조가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효과를 측정해 보면 우호교류로는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문화를 이해한다는 측면 같은 경우만 봐도 측정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리더의 역량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북한과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가 원산시와 자매결연 맺었지만, 몇 년 전에 여러 문제가 생겨 파기된 채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가 들어온다든지 지도자간 교류가 있었는데, 제한이 걸려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두만강 개발 등이 부상하고 있으니, 예전의 인연을 되살려서 앞으로 관계를 복원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가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5) 아까 강연 중에 한일 교류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본이 다른 나라와 교류할 때와는 역시 다른, 한일간 교류의 특징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A5) 역시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은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정보 교환도 활발합니다. 일본에 제가 있더라도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구요. 그래서 거의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보여지구요. 또 하나는 상호 이해가 깊고 이미 500여 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의 정보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처럼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블로그의 정보를 통해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교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이웃나라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가장 원만하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 한일간 교류입니다. 직장문화나 가치관의 유사성이 상당히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 때는 그 가치관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 큰 작업일 때가 많아서, 사무적인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일단 공감을 하고 생각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 첫 단계인데, 한일간에는 그 단계는 이미 넘긴 것이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끝/